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4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송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등 열네 분의 위원님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의 안건을 지금 여야 간사님께서 논의를 했는데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기재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7일 날하고 12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기재부하고 관련 청 그리고 기금 예산심의를 위원님들하고 아주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 감액될 부분은 감액,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비비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감액을 계속 저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주장을 했고 여당 위원님들은 반대를 하셨고, 그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여당 위원님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셔서 12일 날 의결을 못 하고 13일 어제 9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정부 측에서도 조정안을 전혀 내놓지도 않고 정회했다가 여당에서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표결 처리로 해서 감액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부 측은 들어오지를 않았고요.

증액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증액 부분은 상임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증액 부분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하자 없이 절차에 맞춰서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기재부 또 관련 기관 2025년도 예산을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을, 기재부와 관련되는 기관, 기금 예산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지금 바로 상정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전문위원이 우리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지금 손 드신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차규근입니다.

어제 전체회의 개의를 한다는 문자를 오후 5시 7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니까 5시 10분에 개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길래 저는 회관 제 방에 있었는데 ‘이게 뭐지?’하면서 급히 방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몇 분 모이셔서 그냥 또 산회를 해 버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서 상당히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그런 바람에 조국혁신당은 어제 상정된 세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회법 58조 1항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3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상황은 국회법 58조에 위반되는, 절차적으로 원천 무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상황은 절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희 의사진행발언만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예?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예,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기재위 과행의 단초가 된 기재위 소위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일영 위원장님 버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정제된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면 예비비에 대한 자료제출 불성실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례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라든지 업추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무차별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올해 기재위 예산소위는 어느 해보다 여당 위원과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예산심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기본경비, 업추비 일부 등 상당 부분 예산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만들어 갔고요. 최종적으로 예비비, 국채 이자, 특정업무경비, 3개 사업만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비를 1.2조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저는 여차…… 정회 이런 걸 요구하면서 간사 협의 등이라든지 추가 막후 재협의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고 그다음 날 아침에 다시 속개했습니다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과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예비비는 일단 정부 수준이 과한 수준은 아니고, 물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 가지 지출 소요나 가용재원 등을 판단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까지 기재위에서도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감액 수치는 정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예결위 단계에서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해 왔고요. 예결위에서도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고 정부 입장에서도 1.2조를 삭감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재위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모범 상임위로서 활동해 왔는데 이번 예산소위에서 야당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예비비 1.2조 삭감 의결 과정에서 정부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 1.2조 예비비 삭감에 동의하지 못하고 증액도 동의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삭감 사업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2조가 아닌 2.4조를 삭감했고 국채 이자도 5000억 삭감했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업추비, 특정업무경비도 일괄 5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삭감 요구한 것 중 최대액으로 재삭감하는 등 감정적·보복적으로 대응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야당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하시고 정부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니까 앞으로 기재위에서 어떻게 할지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 우선 기재위가 어제 그렇게 과행 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 중심에 특히 위원장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참으로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 상임위와는 달리 기재위가 서로 합의하에 그동안 운영해 왔던 이 분위기를 일거에 깨뜨리는 상황을 위원장께서 왜 그렇게 자초하셨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어제 회의에 대한 원천 무효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이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의사일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회의는 간사 간에 국회법에 따른 협의를 거쳐서 1번 안건 예산안과 기금 처리, 2번 법안 상정과 대체토론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통지가 됐지요. 보좌관들도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안건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안건을 누구 마음대로 없애고 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까지 위원들께 공지가 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권한 남용이지요.

어제 그런데 위원장은 협의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전에 통지했던 두 안건이 왜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열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 구해서 안건을 빼든지 말든지 했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일방적 파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제 안건을, 그렇게 산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소집 요구를 해서 안건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협의가 된 상황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으나 정치적으로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여서 오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 법규를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해서 원래 어제 1번 안건이었던 예산안과 기금 처리안을 야당 위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절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소위 심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13년 동안 예결위부터 간사, 소위원, 기재위도 했습니다마는 어제와 같은 경우 처음 봤습니다. 여야가 증액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딱 남은 게 예비비 부분이었는데,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관장하는 상임위 아닙니까, 예비비는. 기재부가 이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단계에서 심사를 하고 감액에 대한 의결을 해야지요. 잘못된 관행을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라, 예결위로 이걸 넘겨라라고 하는 것만 반복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어떤 타협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그저께, 어제께지요, 2차관을 따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마지막 쟁점이 될 테니까 합리적 수준에서 안을 가져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해소되고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리적 수준은커녕 끝까지 기재위에서는 이 예산 문제는 다루지 말자, 예비비는. 포기 해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데? 예비비를 그러면 어디서 다릅니까, 제대로? 정치적 타협책으로 마지막에 그냥 서로 딜하자고요? 나중에 예결위 단계와 여야 협상 단계에서 만약에 예비비 한 푼도 안 깎을 거면 얘기해 보십시오.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보나 마나 최소 몇천억 깎을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만 맡깁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다루는 기재위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1조 2000억도, 제가 다른 안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는 예비비에서 깎고 2000억은, 국고채 이자 상환비가 30조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2000억을 깎아라, 그래서 1조 2000억을 맞춰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타협책도 정부도, 여당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1000억 얘기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이 4000억 정도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제시했어야지요, 정부가. 그런데 끝까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야가 합의해서, 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구두로 동의를 다 했던 그 증액사업까지도 막판에 자기 못 받겠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 봤습니까? 정말 황당한 경우를 저는 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재위에 국민이 부여한 예산 심사권을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다 동의했던 증액사업도 마지막에 이것과 연계됐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바꾸는 거야말로 오만방자하고 오기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입법부가 바로 잡아 줘야지요.

따라서 저는 어제 회의 원천 무효 선언해 주시고 위원장 사과하시고 그리고 오늘 1번 안건으로 여야가 심사해서 그래서 소위에서 정당한 적법에 따라서, 적법적 절차에 따라서 의결된 소위안을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시고, 만약에 그 소위안이 부당하거나 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하면 될 일입니다. 위원장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언석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위 회의 일정 안내에서 안건을 소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당일 날 회의 때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야 간사가 당연히 어제 전체회의는……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 말씀 좀 들어 보고……

○박홍근 위원 예산안을 처리한다, 법률안을 상정한다 이게 둘이 합의해 가지고 다 우리한테 통지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박홍근 위원 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위원장 송언석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야 간사께서 협의를 해서 안건을 정해야 되는데 안건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홍근 위원 오늘은 안 된 거지요. 어제는 된 거지요.

○위원장 송언석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박홍근 위원 사실관계를 다르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언석 아니, 사실관계를 지금 바로 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데……

그래서 기재위 당일당일 처리해야 될 또는 상정해야 될 안건 리스트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건 맞겠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그건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 정리해서 나중에……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예결소위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절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제 통지한 시점이 5시 7분에 했다고 행정실장이 아까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5시 10분에 회의를 소집했고 어제 동영상 녹화한 걸 보니까 1분 30초가 안 되는 시간대에 회의를 하고 산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대를 통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절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시간적인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양해해 준다면 그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한 분의 국회의원이라도 기재위원이 문제 제기하면 이건 무효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들의 참석을 고려했다면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셨어야 되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간…… 물리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시간대에 물리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물리적으로 참석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일부, 특히 다수 위원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한 것은 이건 도저히 국회법이나 민주주의 절차상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라고 선언 안 하면 법적으로 무효 선언 절차를 가야 된다. 권한쟁의심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위원장님께 권한쟁의심판 하면 위원장님 그 책임 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무효 선언을 스스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이종욱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그건 별개라고 봅니다. 그 자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뭐라고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어제 했던 그 절차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또 다른 분.

박수민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송언석** 박수민 위원님 하시고……

○**박수민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계속 고민하는데 저희는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법 집행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저희 스스로 토론하고 만들어 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고 여야 토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위가 가지고 있는 기재부 예비비 편성에 대한 권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인내심 있게 끝없이 토론해서 합의로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요. 소위에서 일방통행 시킨 그 상황에서 아름다운 저희의 협치 노력에 약간의 균열이 갔고 저는 봉합할 수 있다고 또한 믿습니다. 해서 그 부분 너무너무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회에 오기 직전에 스타트업에서 짧은

친구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요. 약간의 폭언만 있어도 요즘 큰일 납니다. 그것이 저희가 발전시켜 온 선진국의 상황입니다.

저도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어제 위원장실에 와서 해 주신 행동에 대해서 저는 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사과는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 그 부분 꼭 좀 당부드리고요. 협치를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기재위가 갖고 있는 기재부 예산, 예비비 권한에 대해서 상의하고 하겠다 그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인내심 있게 여야 합의를 해 주셨어야지 소위에서 일방통행 시킨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결국 숫자에 의한…… 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드리는 질문이 그러면 입법부는 사법부랑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20만 명씩, 한 명씩 보내서 저희끼리 토론해서 당신들끼리 룰 세팅을 한번 해 봐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에 의한 기재위 소위가 과행이 됐다는 점 이 점부터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시에 저희가 성찰할 점 있으면 성찰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짧은 친구들 보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가장 큰 업적이 뭐니까? 갑질 청산 아닙니까? 폭언, 저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왜 안 지르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관행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예산소위의 합의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품격 있는 항의와 논쟁 이것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의 오늘 너무 나도 태연히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은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의견을 서로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의결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장께서 3분 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1분 20초 만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산회한 어제의 상임위원회는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고 또 더구나 어제의 안건이 세법이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그러니까 납세자가 우리에게 위임해 준 세법에 대한 심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했다. 어떻게 그 중요한 세법, 내년 세입예산을 결정짓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에, 납세자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그 중요한 세법을 1분 20초 만에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서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다 끝내고 소위로 넘겨 버렸다.

설사 조세소위 위원들은 조세소위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위 위원이 아닌 나머지 기재위원회들의 대체토론을 할 권리는 어디 가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임해 준 납세자들의 권리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회의를 무효로 선언하고 위원장께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사과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재위 예결소위에서의 논의는 논의 내용대로 존중받고 그 절차와 과정을 가져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입장은 각 개별 위원들의 입장과 양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저는 마지막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가 예비비에 관한 여러 가지, 민주당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음에 불구하고 단 1원도 조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되지 않고요.

그러면 기재위에서 가지고 있는 예결위 심사 의결 권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형태로 입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 자체가 틀렸고요. 그 내용은 예결소위의 문제라서 내용 하나하나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위원장님께서…… 90년대 말부터 제가 국회에 있었지만 이 절차와 과정을, 회의 시간을 회의 참석하지 못하게끔 공지하고 회의를 날치기로 통과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회의를 공지하고 문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은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르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7분에 공지하고 10분에 회의를 개최하는 행위는 이것은 도저히 절차와 과정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고지하고 그 절차하고 과정대로,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 과정을 돌파하시든지 어떤 방식을 찾으셨어야지요. 그 자체를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된 사안 자체는 원천 무효다. 위원장님께서 국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한번 복기해 보시면 이런 경우를 찾아보면 없을 겁니다. 행정실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끄럽고 상당히 모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의 사과와 원천 무효를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안건 통보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합의돼서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저는 그것은 너무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오늘은 전체회의를 앞두고 어제는 예산안 상정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결과 법안 상정이라고 하고 이전 전체회의에서 다 예고한 바대로 모든 기재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저는 너무 궁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께서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어저께 회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국회법에서 정한 법령대로 절차대로 다 진행이 돼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의결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위 과정에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상정하고 의결하지 않고 산회를 하면 되지요.

○위원장 송언석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다 온 자리에서.....

○위원장 송언석 윤호중 위원님이.....

○김영진 위원 그럴 권한이 위원장한테 충분히 있어요.

○위원장 송언석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송언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의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했듯이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의 어떤 토론 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 간에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쪽에 누가 손 드셨나요?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우리 국회의원이 믿어야 할 것은 의식수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소위에 가서 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어제 아침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예결소위를 하면서 참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다 세금이고 귀한 줄 알 텐데 우리가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제 마침 평소에 제가 좋은 모습만 봤던 위원님들이 TV에 나오는, 카메라 앞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예결소위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1회, 2회를 통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죽 해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합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증액 부분에.....

특히나 예비비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관행도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2012년도에 1000억을 예결위에서 감액을 하고 넘긴 적 말고는 늘 전체 예결위에 가서 조정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것은요, 이 감액안을 갑자기 증액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실려서 보복성 감액안을 또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소위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정일영 소위원장님이 해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일영 소위원장을 존경합니다만 우리가 첨예했던 감액안에서 다시 감액을, 더 감액을 시키고 우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위원장님이 사과를 반드시 선행해 주셔야 되고 우리 여야의 합의 없이 통과된 예산안 심의 결과는 저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정치가 의석수를 떠나서 토론을 충분히 한 가운데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게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 하면 국회의원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150명, 150명 비례로 뽑아 놓고 합의에 의해서만 정리하면 되지. 저는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리고 시간 얘기는, 5시 7분에 문자 통보받고 10분에 회의 소집하고 1분 30초 만에 회의를 산회한 것 이 얘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 가면서 이 도둑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할 때도 명분이 있을 텐데요.

국회법 57조 4항에 보면 소위원회 활동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돼 있고요. 58조 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돼 있습니다. 3항을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어제 1분 30초간 대체토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을 공지하고 회의를 개의한 것 자체가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적 내용, 대체토론을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됐어야……

그러면 대체토론 왜 하냐? 소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은 이 조세법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이 소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체토론을 해서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소위에서 토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 회부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벗어나고 국회법에도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요, 예결소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 이견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니다.

항상 싸움을 할 때는 초창기에 갈등 구조를 최소화하면서 온 거고 이 갈등이 발생하면 그다음 단계에서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것도 어려우면 그다음 단계, 그래야 갈등이 해소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최초 단계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었지만 예결소위에서 이견이 있어서 의결했어요. 그러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당의 간사님하고 국민의힘 간사님하고 계속 소통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겠느냐, 이 안은 어떻겠느냐라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노력을 했다든지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 전체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겪어 가면서 했을 때 서로의 어떤 마찰이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들은요, 이게 그런 과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생략됐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간의 이 갈등의 고리, 위원장에 대한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법의 절차 그리고 위원장님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 어제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이든 국회 윤리위가 됐든 또는 다른 사법절차가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최소한 위원장님의 유감 표명, 사과 표명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하셨지요?

○정일영 위원 아니, 소위원장한테 사과를 요구하니까 제가……

하신 다음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일단 최은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야당 위원님들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위원장님의 권한 남용에 따른 무효 그리고 위원장의 사과 요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다수당의 폭거를 보여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이 시작이, 저는 예결소위에 안 들어갔지만 어찌 보면 예결소위의 과행과 예결소위에서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예결소위 위원장의 의사결정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실은 거기에 따랐고, 어제 오후에 있었던 회의는 물론 빠르게 진행된 것은 있지만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들 준수하고 한 겁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세소위에서 지금 우리가 빨리, 민생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들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토론하고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목전에 닥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소위에 부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것들에 있어서 흠풀을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고.

특히 어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위원장실에서 보여 준 폭언하고 무례 같은 것들은 제가 국회……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무례한 행동과 폭언……

어제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만 처음부터 반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우리 같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위원들끼리 위원장실에서 그렇게 반말로 위원장을 압박하고 위원장을 겁박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2024년도 제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아,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정말 어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예결산소위 위원장님부터 시작된 이런 것들을…… 사과하려면 예결위에서 그런 어떤 감정적이거나 보복적인 회의 진행과 다음에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시고, 어제 또 위원장실에서 정말 무례하게 반말하시고 무례하게 폭언하신 분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벼랑밭을 겁니다.

○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입니다. 기재위원으로서……

○최은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꼭 먼저 사과하시고 다시 우리가 품격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서로 합의하고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기재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최 위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해 봐요.

○최은석 위원 예, 저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위원 귀 당 위원이 폭언을 했지……

○최은석 위원 아, 처음 시작은……

○윤호중 위원 소리가 크다고, 다른 위원들이……

○최은석 위원 시작을 야당 위원님들이 먼저 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 소리가 크다고 그게 폭언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언석 정일영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니까?

○정일영 위원 예, 하겠습니다.

예결소위 소위원회으로서 제가 사과할 사항은 없고요. 잘 들어 보십시오.

소위에서 정해진 기간 11월 7일, 12일 양일간에 심도 있게 정말 여야 그리고 정부까지 하나하나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잘 정리해 갔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다시 연장해서 어제지요, 13일 따로 시간을 잡아서 9시, 왜냐하면 10시에 전체회의가 있었으니까, 예정돼 있었으니까요. 9시에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9시에 속개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데 여당 위원님도 예비비에 관련해서, 특히 정부에서 아무런 수정안도,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어떻게 보면 여당 위원님들은 조금이라도 조정안을 주실 것도 같은데 정부는 오만하게도 한 발자국도, 예비비에 대해서 1원도 못 깎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10시에 회의는 예정돼 있고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에서 결정한 게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이 회의에서, 소위가 잘못했으면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논의해서 바꿔 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빼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결산 때 수없이 예비비가 문제 있다고 예비비가 원칙으로 안 쓰인다고 예비비 운용이 방만하다고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4조 2000억에서 6000억이나, 일반예산 3.2% 증액했는데 예비비는 14%나 증액해 가지고 가져온 4조 8000억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 있는 그리고 수없이 지적된 기재위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예비비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전체회의에 어떻게 그걸 보고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예결소위원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표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정부가 오만하게도 증액이라든지 그동안 합의했던 것을 다 못 하겠다는 겁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동안 합의했던 것도 다 무효다라는 식입니다. 그런 오만한 기획재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합의의 정신 아래 양보하고 협의하고 수용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감액만…… 좋다, 정부에서 증액에 대해 도저히 동의를 못 한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감액을.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증액 부분 했는데 정부는 아예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충분히 논의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됐습니다, 표결했고.

전체회의에 올려 주십시오. 이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 주세요. 소위가 잘못됐으면 고쳐 주세요. 상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해서, 소위 의결사항이 잘못됐으면 고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겨 주세요.

어저께 그렇게 위원장님의 회의하신 건 제가 볼 때는 원천 무효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비비가 잘못됐으면 예비비 고쳐 주세요. 그래서 예결위 넘기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선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요.

○위원장 송언석 최기상 위원님 아직 발언 안 하셨으니까 최기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어제 상임위원장 방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아마 위원장께 더 심한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사적으로도 현행범인의 체포라는 표현도 있고요. 강도나 도둑이 도망가는데 우선 잡아야지요.

○위원장 송언석 비유가 조금 듣기가 거시기합니다. 위원장이 지금 뭐……

○최기상 위원 그런 표현을 일단,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일단 말씀을 드리니까요, 잘 들어 보시지요, 끝까지.

○위원장 송언석 좀 심하다는 말씀 드려요.

○최기상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오후 5시 7분에 통지를 하고 5시 10분에 회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소 양보하더라도 국회의 경내에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형사피고인이 선고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판사와 검사가 조금 기다려라, 다시 통지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검사랑 판사가 짜고 3분 안에 오라고 문자만 보내 놓고 오기 전에 출석 안 했네라고 해서 영장 발부하고 선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판사나 검사가 본인들이 하는 결정에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아주 왜소하고 작은, 우리 대한민국의 유권자나 국회나 수많은 공직자들을 아주 작게 만드는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위법 여부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권한을 침해받은 야당 위원들이 그 권한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답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송언석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어쨌든 같이 쭉 합의하면서 삭감을 갔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다시 재삭감을 한 것은 제가 보니까 분명히 감정이 섞였고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삭감 쭉 가서 ‘나, 너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더 삭감할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건 방해 놓는 거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회의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서 제가 도저히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의 상황을 제가 한번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가 있다고 대기를 하라 그래서 정말 아무 데도 안 가고 사무실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기다리면서 조세소위 심사 준비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습니다, 5시 7분에.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건 7분이 조금 넘은 몇십 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 10분에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어, 이것 너무 급한데’ 이러고 양복 자켓도 입을 시간이 없이 들고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국힘 위원님들은 어떻게 그 시간에, 제가 아마 제일 빨리 움직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야당을 배제한 채 회의를 하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조세소위 일정도 지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 조세소위에 오르는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세법이 많습니다. 저는 28년간 세정 현장에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소위 심사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7일간 조세소위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소득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증세법까지 살펴봐야 할 과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저는 과행을 택한 여당의 행태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장 명의로 공지된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13일 전체회의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예산 심사를 의결하고 법안 논의를 이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저는 초선으로서 첫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타 공인하듯이 우리 기재위는 그야말로 신사도를 지키는 그러한 상임위다, 그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여야 간의 균형을 잘 맞춰 주셔 가지고 저희는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관행을 가져왔었는데요. 정말 어제는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2분 전에 통보하고 1분 20초 만에 토론이 마무리되고 산회가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결위 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법안 상정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세법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2년 연속 계속된 데다가 국세 감면한도도 3년 연속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세법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까, 굉장히 논의할 사항도 많았고 또 세목별로 보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상증세의 감면 문제 또 그리고 벤류업 지원 과세 문제에 굉장히 이견도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완전히 물거품이 돼 버려서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 문제, 예산소위 문제, 제가 거기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건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참 어렵게 증액·삭감 논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아마 예비비 삭감 규모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충분히 여야 간에 합의를 조금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매우 긴축적인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율도 14%나 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예비비가 작년, 금년 실제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합니다. 70%, 80% 불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좀 착안을 해서 어느 정도 기재위에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안을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해서, 기재부는 정무적으로 그런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전체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었던 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쉽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대략 얘기가……

○김영환 위원 저도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하시려고요? 다하신 것 같은데.

○김영환 위원 아니요.

○정태호 위원 저도 얘기할 거예요.

○위원장 송언석 김영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제가 당선되고 들어와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에 단 한 번도 결석이 없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모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 유권자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서 제 의견, 제가 가진 신념을 제대로 얘기하겠다.

그런데 어저께 회의는요, 원천적으로 제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5시 9분에 문자를 봤습니다. 정말 다 싸들고 막 달려 왔어요. 그런데 회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전에 기획되고 모의되고 이런 것 아니면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까? 다들 어디에 계셨어요, 5시 7분에? 다들 모여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언제 의견을 나누셨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왜 5시 9분에 문자를 봐야만 했는지 그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 권리가 방해됐습니다. 제가 의견 진술하고 제가 제안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박탈됐습니다, 원천적으로. 출석도 못 했습니다. 저는 결석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이 피해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저희 지역 유권자들, 어떻게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저 결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한 행사를, 어제 회의는 제 권한 행사를 방해한 회의였고 제 원천적인 권리 를 아예 박탈한 회의였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간사님 두 분……

정태호 간사님.

○박대출 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송언석 예,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참 오늘 우리 모범적인 기재위가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열고 있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우리가 과방위나 법사위와는 달리 참 모범적인 상임위였고,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의 간사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경륜과 인품으로 우리 기재위가 품격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안 심사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국민들 보기기에 부끄럽고요.

안건이라는 게 통상적인 합의가 되면 안건으로 회의를 하자고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회의를 할 때는 안건으로 올리자는 여야 간, 간사 간의 협의가 있지요. 그것을 또 위원장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최종 안건으로 올릴 때 그게 안건이지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안

건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비비 문제인데요. 예비비가 늘 불용 문제 또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문제로 예산 심사 때 되면 이런 경우를 겪지요.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일 때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늘 남게 해야 되는 게 예비비의 사용입니다. 이름이 예비 아닙니까. 언제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지도, 어떤 용도로 쓸지도 모르지만 태풍이나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 그런 큰 피해, 우리 국민들 큰 피해를 겪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는 그 비용으로 쓰는, 남겨 놓는 돈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예정에 없던 국가원수가 정상외교를 하는 데 비용으로 쓰기도 하지요. 정상외교가 아니라 누구처럼 타지마할 묘나 관광 가면서 쓴 경우도 있지만 말이지요.

예비비가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또 사용처가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항상 항목이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원칙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국회가 소임을 다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출발점이 예산소위로부터 시작됐다는 점 이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비비를 지금까지 상임위, 기재위에서 이렇게 2조 4000억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감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확인을 해 봤더니 2011년에 겨우 딱 1000억 원 삭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없었던 것, 그 이전에 없었던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예비비의 사용이나 용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고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다 존중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사태의 발단이, 출발점이 어디인지 인식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왈가왈부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회의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해야 될 소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소위도 빨리 가동시켜 주시고 예산안 문제에 대한, 예산안 소위를 다시 열든지 아니면 여야 간사 간 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종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든지 조속히 방향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제가 아무래도 소위에 있었으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영 소위원회께서 잘했다 하시는데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불만은 있습니다만 진행은 잘하셨고, 마지막 순간 빼고요.

일단 저는 과행은 민주당이 먼저 도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끝까지 협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의결하시려고 서너 번 정도 시도를 하셨고요 제가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재차 정회를 요구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왔고 마지막 당일 날도 9시에 다시 협의하도록 제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이……

저는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잘 생각하시라.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재위가 협의에 의해서 잘해 왔는데 지금 이러시면 기재위 운영에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끝까지 협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수적 우세로 힘자랑을 먼저 하신 거지요. 그래서 협의 정신이 파기됐고 지금 기재위 파행을 먼저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 저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국회법 좀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시간 되면. 각 상임위는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본회의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도록,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 작성, 의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안건의 목록을 작성해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사일정과 개의시간, 심의 대상 이것을 순서를 적어서 작성하고 이걸 작성하고 나서 운영위하고 협의하고, 우리라면 간사하고 협의겠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해서 의사일정을 자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에 공표한다 이게 본회의의 규정입니다. 즉 위원회는 여기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5일 ‘기재위 전체회의 안내, 11월 6일 오전 10시, 안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장소……’ 이거 국회법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제가 법률을 몰라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구나 이것은 여야 협의를 넘어서 합의까지 돼 가지고 안건을 공개한 거라고요. 왜 사실관계를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국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안 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지요. 마치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오늘 안건 다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통해서 올려 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마는 후반기 원 구성 때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직을 걸고 민주당이 가져올 겁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 저희들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을 걸고 기재위원회, 민주당이 가져올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후반기.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위원장 송언석 박홍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책상 치거나 그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은 더 적절치 못한 행동을 어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송언석**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 회의를 포함해서 국회법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이었기 때문에, 예산안은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얼마든지 열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두 분 간사님……

정태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 들어 보면 참 기가 참니다.

위원님들, 3분 안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여기 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올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위원장 송언석** 오전 10시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원래 회의가 10시였습니다, 오전 10시.

○**정태호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상식적으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2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송언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태호 위원** 절차도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어제 박수영 여당 간사님하고 4시 반에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소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당연히 합의가 잘 안 됐지요. 그러니까 간사가 있는 거잖아요. 4시 반에 만나서 제가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가지고 당에 가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과 정부를 설득해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협상 중이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제가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시 7분 좀 지나 가지고 소집 문자가 온 거예요.

그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이에요. 그러면 그 협의 상황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간사 간의 협의라는 게 위원회 운영의 정신 취지입니다, 국회법. 그러면 그걸 존중했어야지요. 협상 중인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와 보니까 이미 회의는 끝나 버렸어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거라고 봐요?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참 기가 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재위에서 예비비 깎은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기재위 예결소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깎은 거예요. 기재위원회들이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깎아야지요. 작년, 재작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깎은 거예요.

올해 예산 증액 부분에서 예비비가 두 번째로 많아요. R&D 예산 늘어난 것하고 그 두 번째로 예비비 증액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당 위원님들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모여 가지고 모의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소집한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국회법 77조에는……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 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 운영에도 준용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소위에서 확정한 예산심의, 기금심의의 확정된 안을 위원회의 안건으로 옮겨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표결이 필요하다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언석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위원 여당 간사입니다.

우리 기재위는 늘 상원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또 그동안, 6개월 동안 아주 순조롭게 잘 운영을 해 왔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간사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당 간사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여당과 야당 간사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결소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조금, 거의 2배 이상 늘리면서 감액을 하고 그걸 바로 의결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좀 보류를 하고 여야 간사들한테 심의할 수 있는 또는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불구하고 여야 간사가 조금 더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기재위가 상원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있는 상임위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정태호 간사님하고 논의도 더 하고 협의도 더 해서 제대로 된 상원으로서의 품격 있는 위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충분히 의견을……

○김태년 위원 간사님은 그 이야기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태호 위원님이 4시 반엔가 만나서 협상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돌아가서 상의해 보고 정태호 간사한테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의견 받아서 통보도 안 하고 회의 막 해 버리고 그 거와 관련해서 박수영 간사가 한 말씀 하셔야지.

○박수영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드릴까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아니, 뭐 따로 할 얘기예요, 그게?

○위원장 송언석 김태년 위원님.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예결소위에서는 의결을 추가로 한 번 더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를 조금 더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그게 일단 선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좀 정회를 해서……

○정일영 위원 의사일정 변경안 지금 제출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송언석 아니, 중요한 건 이 안건을 처리하는 문제 아닙니까?

○김태년 위원 절차대로 하세요.

○위원장 송언석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절차 지키세요.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송언석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위원 잠깐만.

○위원장 송언석 아니, 왜 위원장 얘기하는 걸 말을 막아?

○김태년 위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냈으니까 그거부터 처리하라고요.

○위원장 송언석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사항이지만 양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어떻게 최종 처리할 건지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박홍근 위원 아니, 국회법을 따르시겠다면서요. 그러니까……

○박대출 위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세요.

○박홍근 위원 아니아니, 국회법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면 이것 토론하지 않고 처리해야지요.

○정일영 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해 주시고 소위원회으로서 보고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언석 아니, 조금 전에 국회법 관련 조항을 읽을 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라고 그렇게 읽은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니까?

○박대출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태호 위원 아니, 그것 행정실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송언석 이 문제는 어쨌든 일단 예산에서부터, 선결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 간사님께서 예결소위원회하고 같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조금 더 협의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홍근 위원 이것만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어인데, 하나는 본회의도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아니면 의장이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어 아닙니까, 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를 물어봐서, 본회의는

2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우리 위원회의 정수를 따져서 여기에서 의결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필요할 때는 의장이 그냥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위원장 송언석 그러니까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하니까……

○정일영 위원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 오어예요, 오어.

○위원장 송언석 그러니까 예결소위에서 의결해 온 안건 자체가 오늘은 지금 상정이 안 됐어요. 오늘은 상정 안 됐어요.

○박홍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일단은 지금 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개의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안건이든지……

○위원장 송언석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태호 위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오면요 의사일정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하는데, 추가하는 절차는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이 협의하거나 판단하거나, 오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결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송언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셔야지요.

○박홍근 위원 아니, 우리 국회법에 따라야지요. 그건 운용의 묘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해 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송언석 그러니까 국회법을 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산회를 하지 않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니, 이것은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왜 정회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송언석 토론 안 하잖아요. 지금 토론 안 하잖아요.

○박홍근 위원 여기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3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출장 위원(1인)

박성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